윤 당선인, 올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한다

한국신문협회 회장단 차담회서 김여송 부회장 질문에 답해

"언론 자유는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

서울서 '신문의 날' 축하행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6일 "권력이 부패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이라며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자산인 다양성의 확보에도 언론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의 날' 축하 행사에서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신문의 날' 축하 행사에 앞서 윤 당선인은 한국신문협회 회장단과의 차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부회장인 김여송 광주일보 발행인이 다음 달에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윤 당선인은 "당연히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성장과 발전은 인쇄기술이 불러온 신문의 탄생과 보편화를 빼놓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론직필을 향한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신문을 통해 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접하고 그 속에서 형성되는 다양성은 우리 사회를 보다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신문은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든 지식 문명을 선도해나가는 요체"라고 평가했다.

윤 당선인은 "제가 언론인 여러분 앞에 자주 서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민심을 가장 정확히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제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문의 날 축하행사에는 윤 당선인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6회 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한국신문협회 부회장인 김여송(왼쪽) 광주일보 발행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코로나 확진자가 직접 약국서 처방약 수령 가능

광주전남 완만한 감소세…전국 신규확진 28만6294명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일상화에 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도 직접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 9155명, 전남 1만2387명 등 2만1542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다. 광주와 전남의 하루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1만명대로 하락했다가 닷새만에 다시 2만명대로 올라섰지만, 지난주와 비교하면 완만한 하락세다.

통상 검사자수가 감소하는 주말을 거치며 줄어들었던 신규 확진자 수는 주중으로 접어드는 수요일부터 급증하는 양상이 나타났지만, 이번 주엔 증가폭이 둔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전국적으로도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8만6294명으로, 전날 26만 6135명보다 2만159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근 4주간 매주 수요일에 발표된 확진자 수는 34만 2430명→40만 574명→49만 780명→42만 4597명으로 3월 2일(21만 9223명) 이후 줄곧 30만~40만명대를 기록했으며, 5주만에 20만명대로 내려온 것이다. 1주일 전인 지난달 30일보다 13만 8303명, 2주 전인 지난달 23일보다 20만 4486명이나 줄었다.

코로나19 감소세에 따라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도 직접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비대면·대면 진료를 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면 된다. 환자가 희망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팩스나 이메일로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으며, 이후 환자나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약국은 의약품을 조제해 확진자에게 전달하고, 서면과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게 된다.

정부는 확진자가 직접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면투약관리료' 명목으로 환자 1인당 6020원의 수가를 약국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지정된 것과 달리 약국은 모든 곳에서 의약품 대면 수령이 가능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봄, 꽃길만 걸어요"

전남도, 완도 청산도 서편제길·신안 임자도 튤립공원 추천

'저 넓은 들판에, 새봄이 왔어요~,아이야 우리 손잡고 꽃구경 가자꾸나….'

봄이다. 도시를 벗어나 봄을 만끽하고 싶을 때다. 그렇다고 무작정 길을 나섰다가 시간만 낭비하기 쉽다.

전남도가 4월 봄 나들이 하기 좋은 길을 추천했다. 완도 청산도 서편제길, 신안 임자도 튤립공원 등이다.

완도 청산도 서편제길은 이맘때면 유채꽃으로 가득하다. 청산도 슬로길 11개 코스 중 1코스로, 2011년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세계 슬로길 제1호'로 공식 인증받은 구간이다. 푸른 바다와 유채꽃이 한아름 들어오는 인증샷은 필수다. 청산도 주민이 마을 사이를 오가던 이동로를 따라 저절로 느리게 걷는 슬로길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신안 임자도 대광해변 일대 튤립공원도 봄볕을 즐기며 걷기에 좋다. 8만 7425㎡ 면적에 유리온실, 수변정원, 홍매화 정원, 카네이션 동백정원 등이 조성됐다.

코로나로 3년 째 '섬 튤립축제'는 열지 못하고 있지만 튤립공원은 오는 8일부터 문을 연다. 100만송이 튤립을 배경으로 풍차전망대, 유리구슬 조형물, 튤립터널 등은 인증샷 없이 지나칠 수 없는 코스다.

국내 최고의 철쭉 명산인 장흥 제암산도 이맘때 빼놓을 수 없는 코스다. 4월 하순부터 5월 중순까지 곰재 능선에 펼쳐진 진분홍빛 자생철쭉은 장관이다.

철쭉평원 주차장을 출발, 곰재를 거쳐 정상으로 오르는 코스를 둘러본 뒤, 지역 시장에서 먹거리를 즐기는 게 대표 코스다.

산 정상에서 한쪽으로는 남해바다, 다른 한쪽으로 장흥 들판의 풍광을 한꺼번에 즐기는 것도 색다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코로나 유행 후 '죽고 싶다' '우울감' 검색 증가

고려대 의대 연구팀, 포털 검색어 분석 '코로나 블루' 확인

'코로나19' 유행 이후 포털 사이트에서 '죽고 싶다', '우울감' 등의 검색량이 많이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포털 검색어 분석을 통해 '코로나 블루'(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불안·우울) 현상을 밝혀낸 공중보건학적 연구다.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천병철 교수 연구팀은 주요 우울장애의 정의에 따른 16개 검색어를 선정한 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를 분석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연구에는 지난 2월 고려대 의대를 졸업한 김지은·한주희 양이 재학 중 학생연구원으로 함께 참여했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유행 전과 비교해 '의욕 저하', '불면증', '좌불안석', '피로감' 등의 상대 검색량이 유행 이후 유의하게 증가했다. '우울감'과 '집중력 저하'는 남성에서, '무기력함'은 여성에서 유의하게 증가했다. 특히 '죽고 싶다'와 '죄책감'은 유행 초기에는 증가하지 않았다가 유행이 진행되고 길어지면서 유의하게 검색량이 증가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 1년간 검색량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를 비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 '우울감', '좌불안석', '집중력저하', '우유부단' 등에 대한 검색량이 유의하게 늘었다.

'불면증' 등의 검색량은 유행 초기에 높다가 낮아진 반면 '죽고 싶다'는 유행이 길어지면서 지속해서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우울감을 넘어 자살 등을 생각하는 중증 단계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연구팀은 해석했다. /연합뉴스

임야 3천평이상 삽니다
지분환영. 010-8902-7900

지분 부동산 삽니다
당일처리. 010-3605-5000

중앙신용
꼭! 받아야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상가건물 다량보유 부동산매매
담양 월산면 4차선도로변 계획관리 대지
4,200㎡, 4층건물, 2층가든
→ 매가 15억원
영암 신북면 2차선 도로변 계획관리 전, 임야
11,000㎡ 현재 감나무과수원
→ 매가 5억원
나주시 오량동 농공단지 공장용지
3,500㎡, 냉동창고 660㎡, 창고 330㎡
→ 매가 11억원
화순 도곡면 전원주택단지
약 7,400㎡, 전체조성됨, 12필지
→ 매가 20억원
군산시 수송동 지하1층 지상6층 대지
840㎡, 메디컬상가, 보10억 월 3200만원 (부가세, 관리비포함) 은행45억원포함
→ 매가 68억원 (현금 13억원)
해남읍 사찰, 임야
전 36,000㎡ 건물6동 납골당1500기
→ 매가 10억원
두암동 대지
2,900㎡, 건물7동 있음
→ 매가 66억원
동구 지산동 조대후문 먹자골목 상가주택
지하1층 지상3층
→ 매가 7억5천만원
계림오거리 한마음부동산 010-2314-8567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6개월과정)
일 시 : 2022. 5. 3 (화) 오후7시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수강료 : 풍수 + 사주 20만원 (매월)
공개강좌(무료)
일 시 : 2022. 4. 26 (화) 오후7시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2246-1508

채권신고공고(1차)

본 농업회사법인 송광버섯주식회사는 2022년 4월 6일 주주서면특별결의로 해산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분은 2022년 6월 10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4월 7일

농업회사법인 송광버섯주식회사 (201311-0086917)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상이읍길 46
청산인 박 민 환

산행안내

4월10일(일)

▲광주kj산악회 4월10일(일) 경기도파주시문산읍 ■ 평화누리길8코스 ■ (반구정,임진각,화석정,율곡습지)&마장호출렁다리&오두산전망대,트레킹 ※염주체육관05:00,동아병원05:05,롯데백점05:10,광주역05:15,문예후문05:25,비엔주차장05:30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구독문의
신문 220-0551
예향 220-0550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